

산속 하늘꽃 마을에서 배운 것들

스토리 하늘꽃마을생활 (마을의 삶의 방식)
스토리발굴 남궁은정



막연히 동경 했던 단독 주택, 전원생활, 텃밭 농사…….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불안한 영역이다. 그동안 하늘꽃 마을에 살면서 책으로 배우자면 한참 배웠어야 할 시골 생활을 속성으로 익힐 수 있었다.

살림에 대해

하늘꽃 마을의 집은 작고 화려하지 않다. 작은 집에 맞춰 살려고 가지고 있던 짐을 많이 버렸다. 최대한 간소하게 살자고 다짐을 하면서 말이다. 각 집을 방문해 보면 소박하면서도 깔끔하게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을 정리하고 단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마을에선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을 구해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 마을에서 채집하거나 길러서 먹을 수 있는 건 직접 구해서 먹는 편. 사 먹는 것을 당연시했던 나에게 이런 유난스러움(?)은 큰 자극이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

산속 마을에서는 시간의 리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절기, 계절, 한 해의 단위로 시간이 나뉘고, 각 단계별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9시 커피 모임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 준다. 절기 행사는 계절의 흐름을 느끼게 해준다. 정월대보름에 지신밟기와 전통놀이를 하고, 날이 풀리면 나물 뜯기를 하러 나간다. 쌀쌀한 바람이 불면 전어를 구워 먹고, 동지에는 팔죽을 끓여 먹는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초와 제설 작업, 아이들을 위한 할러윈 데이 행사 등.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여러 매듭을 마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뭐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그렇게 빠르게 살면서도 뭔가 변화가 없고 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에서 보낸 시간 동안에는 반복과 차이를 유지하며 안정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정월대보름 윷놀이〉



〈봄나물 캐고 난 후 함께한 점심식사〉

천천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마을에 있으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살아오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삶이 어딘가에 휩쓸려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 하늘꽃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고 모임을 운영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린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며 불안해지는 때가 있다. 너무 여유롭고 한가한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십여 년을 이런 방식으로 잘 살아왔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전부가 아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원을가꾸며 시간을 보내는 앤〉



〈마을쉼터 카페사이〉



마을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하늘꽃 마을은 거리상 시내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일단 마을
 안에 들어오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색다르고 별다른 마을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살고 싶었던 방식의 삶을 조용히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을
 함께 해 나가는 곳. 하늘꽃 마을은 그런 곳이라고 소개하며 이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